

2019. 2. 22. [금] 언론보도



2019년 02월 21일 (목)  
인천/경기

## 경기도, DMZ 일대 '평화와 희망의 공간'으로 조성



## DMZ를 베를린 장벽처럼 '관광 명소로'



### 【앵커】

사람들의 접근을 허용하지 않았던 비무장지대, DMZ가 변신의 기지개를 켜고 있습니다. 베를린 장벽을 평화의 상징으로 만들어낸 예술가들이 DMZ를 찾았습니다. 유은총 기자입니다.

### 【기자】

분단의 아픔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DMZ.

6.25 휴전협정 66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끊긴 다리 교각에는 당시 탄흔이 보입니다.

경기도가 DMZ를 변화시키기 위한 준비에 나섰습니다.

독일 베를린 장벽에 예술을 더해 세계적 명소를 만들어낸 예술가들이 DMZ를 찾았습니다.

예술가들이 가장 관심을 보인 곳은 어느 지역보다 긴장감이 큰 JSA.

JSA 벽에 그림을 그리는 것만으로도 세계적인 관심을 끌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카니 알라비 / 이스트사이드 갤러리 회장 : 작업 과정부터 흥미 있는 행사가 될겁니다. 그러면 분명히 여기에 전 세계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멋진 장소가 될겁니다.]

DMZ는 지난해 5백만 명의 외국인이 찾을 만큼 안보관광지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DMZ 일대에 예술을 더해 세계적인 명소로 바꿔나가겠다는 생각입니다.

[이화영 / 경기도 평화부지사 : DMZ에 세계인들이 와서 볼 관광 콘텐츠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같이 논의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기 서부지역 DMZ를 찾은 독일 예술가들은 현장방문 둘째 날 연천과 강원도 철원 일대를 돌아봤습니다.

### 【스탠딩】

분단의 아픔을 간직한 DMZ가 새로운 평화와 통일의 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OBS뉴스 유은총입니다.

<영상취재: 유병철 / 영상편집: 김영준>

## “DMZ, 베를린장벽처럼 세계 명소 될 수 있다”

알라비 이스트사이드갤러리 회장

독일 베를린장벽을 세계적 관광명소로 재탄생시킨 이스트사이드갤러리 회장 카니 알라비(64·사진) 협회장이 DMZ에 둘러싼 평화화 가능성성을 밝혔다.

알라비 협회장은 20, 21일 경기도 초평으로 일행과 함께 화주 평화누리, 득개다리, 대설동마을, 도라산전망대와 연천 태풍전망대, 배마고지 등 DMZ 일원을 둘러보고 세계인이 참여하는 멋진 작품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는 소감을 밝혔다.

이스트사이드갤러리는 독일 베를린 페렌슈트라세에 있는 베를린 장벽 1.3km 구간에 세계 21개국 118명의 화가가 그린 105개의 그림으로 구성된 아의 벽화로 베를린의 대표적인 관광명소다.

알라비 협회장은 “독일도 통독이라는 대단한 사건을 겪었는데 한국의 DMZ도 인상깊다. 평화도운 통일이 어려지기를 기대 한다”면서 “DMZ 프로젝트를 진행하면 과거 이스트사이드의 경험을 바탕으로 멋진



작품을 만들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예술가들은 힘 의력을 가지고 있어 어떤 환경이라도 그에 맞는 예술작품을 만들 능력이 있다”면서 “이스트사이드에서도 많은 의사소통을 통해 멋진 작품을 만들었다. DMZ에서도 출중한 작업이 가능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그는 어떤 구상을 갖고 있느냐는 질문에 “머리 속에 많은 구상이 있지만 지금 구체적으로 밝히기는 근린하다”면서 “남북한의 대치상황을 보면서 떠오른 많은 영감을 들여가서 정리해 현실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그때는 몰랐지만 이스트사이드 갤러리에는 매년 400만명이 찾아오고 있다”면서 “DMZ는 세계인이 관심을 갖고 있는 장소여서 작업과정 응보만으로도 흥미 있는 행사가 될 것이다. 남북한 통일은 전 세계 사람들의 관심사항으로 분명 성공할 것이다”고 믿했다.

이종구 기자